

제 24호 2017. 08. 24.



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

서울시 감염병 소식지

| 발행: 매월 2째, 4째 주 목요일 | 전화: 02-740-8891~3 | 홈페이지: <http://infectionseoul.or.kr>

가을철 대표 감염질환, **쯔쯔가무시증** 예방하기

<진드기 유충에 물리지 않기>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

쯔쯔가무시증은 어떤 감염병인가요?



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



감염경로

- ▶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에 의해 감염된 **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려** 감염



증상

- ▶ 발열, 오한, 두통 등의 초기증상이 생긴 후 근육통, 기침, 구토, 복통, 인후염이 동반
- ▶ 발진과 가피가 나타남
- * 가피 : 직경 5-20mm크기이며 부스럼 딱지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형성

예방법은 무엇인가요?



쯔쯔가무시증 예방의 최선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

- ▶ 야외 활동 및 작업 시 긴팔, 긴바지, 양말 등을 꼭 착용하여 피부노출 최소화
 - 야외 활동에서 귀가하는 즉시 입었던 옷 세탁하기
 - 야외 활동에서 귀가하는 즉시 샤워(목욕)하기
- ▶ 산책로·등산로 등 지정된 경로 이외의 풀숲에 들어가지 않기
- ▶ 풀 위에 앉거나 누울 때는 돛자리를 펴서 앉고, 사용 후 세척하여 햇볕에 말린 후 보관
- ▶ 옷을 풀밭에 놓지 않기
- ▶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활용하기
- * 풀숲에서의 야외활동, 캠핑 또는 등산, 야생식물 채취, 농작업 지원, 감 따기와 밤 줍기, 주말농장 가꾸기와 같이 풀숲과 접촉 가능한 모든 경우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

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콜센터 24 **1339**로 전화하세요!

썩썩가무시증,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!

1. 썩썩가무시증은 어느 계절에 많이 발생 하나요?

- ▶ 연중 발생하지만 여름철에 산란한 털진드기 알이 초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부화할 때 동물이나 사람을 물어 체액을 섭취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털진드기 유충이 활동하는 시기인 가을(9-11월)에 매개체와의 접촉을 통해 썩썩가무시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러나 진드기 종에 따라 봄에도 발생하기도 하므로 계절과 관계없이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야외활동 후 감기증상이나 가피가 발견되면 썩썩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.

2. 모든 털진드기가 썩썩가무시증을 일으킵니까?

- ▶ 그렇지 않습니다. 진드기는 세계적으로 4~5만종이 확인되어 있고 이 중 털진드기 과에 속하는 진드기류만 썩썩가무시증과 관련이 있습니다.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썩썩가무시균 매개종은 7종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썩썩가무시균에 감염된 진드기 유충만이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.

3. 털진드기에 물리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나요?

- ▶ 아닙니다.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는 보통 10~12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. 따라서 썩썩가무시증 증상은 잠복기를 거친 이후 나타나게 됩니다.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.

4. 한 번 감염된 사람이 또 감염될 수 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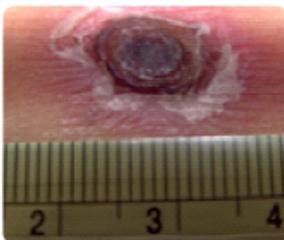
- ▶ 감염될 수 있습니다. 동일한 혈청형에는 일정기간 면역력을 갖게 되나, 다른 혈청형의 균에 감염 되었을 땐 재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방수칙을 준수합니다.

5.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가요?

- ▶ 가능하지 않습니다. 주로 털진드기를 매개체로 하여 전파되므로 인플루엔자와 같이 사람 간 전파가 불가능합니다.

6. 가피가 형성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?

- ▶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부스럼딱지가 생깁니다.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로 피부가 겹치고 습한 부위, 복부(허리), 겨드랑이, 가슴 등 주로 몸통 부위에 발생이 많습니다. 아래 사진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형성된 가피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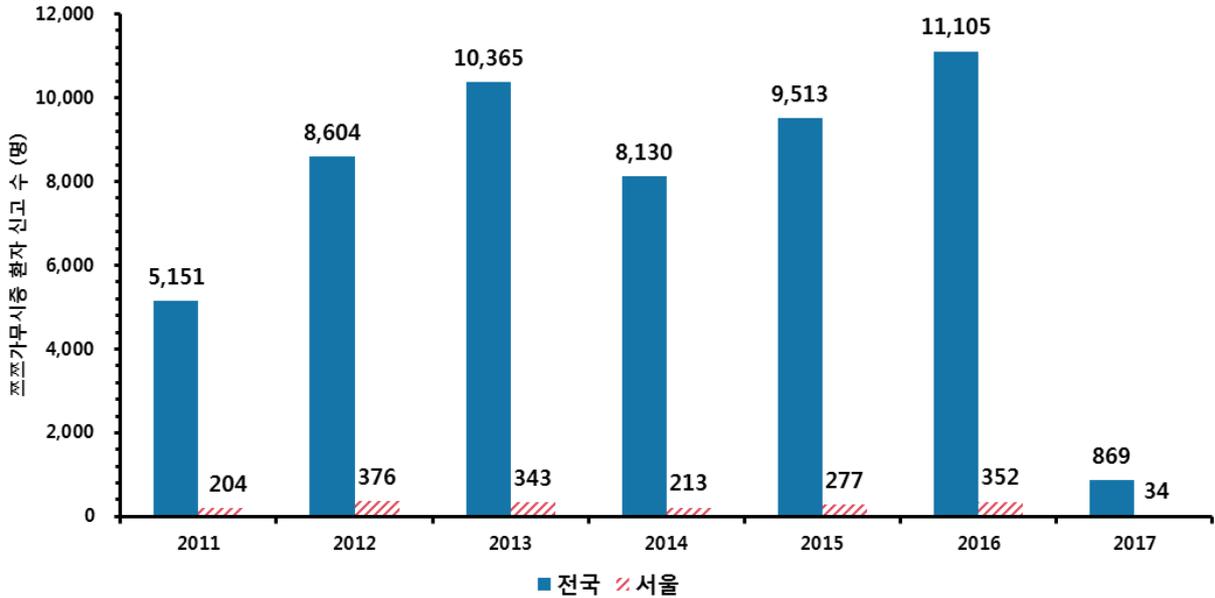


* 참고: 질병관리본부 질병정보, 진드기 매개감염병 관리지침(2017), 썩썩가무시증 리플렛 도시형(2016)

참고

서울시 쯔쯔가무시증 신고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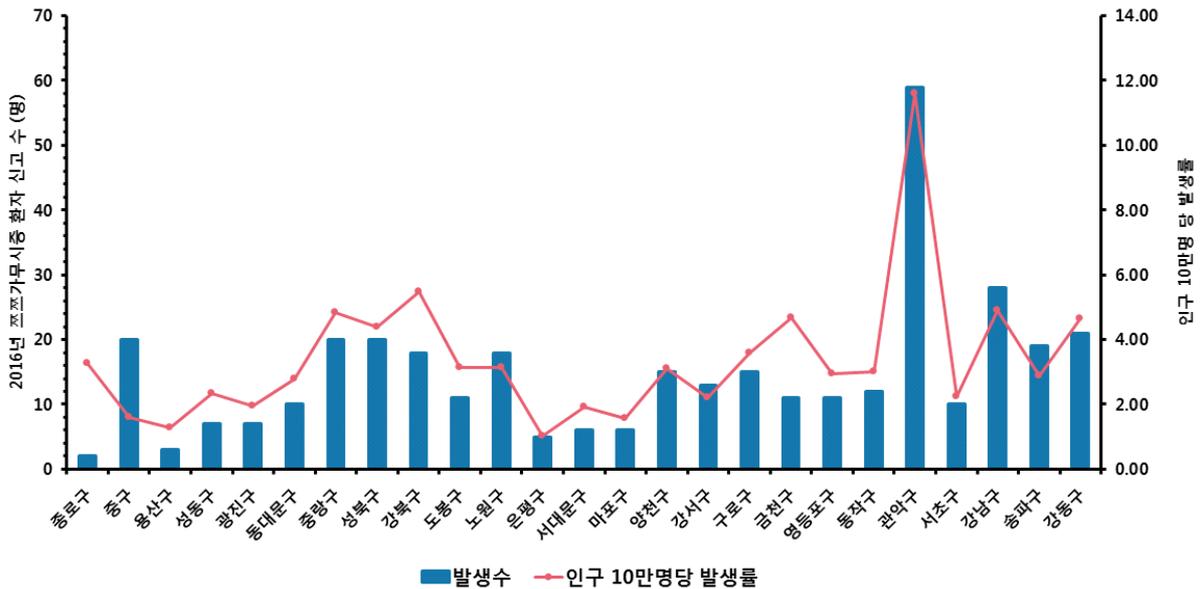
전국 대비 서울시 쯔쯔가무시증 신고현황



* 출처 :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, 2017년 8월 21일 기준

- ▶ 2017년(2017.8.21.기준) 서울시 신고 환자는 전국 쯔쯔가무시증 신고 환자 대비 4% 특히, 털진드기 유충이 활동하는 가을(9-11월)에 매개체와 접촉을 통해 감염 확률이 높음

서울시 쯔쯔가무시증 자치구별 신고현황(2016년)



* 출처 :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, 2017년 8월 21일 기준

- ▶ 서울시 자치구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관악구가 환자 발생률 (11.6명/10만명 당)이 가장 높음
- ▶ 타 지역 방문 없이 감염된 환자(서울시 전체 환자 중 60명)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관악산 (관악구 내 타 지역 방문 없이 감염된 환자 24명) 산행 등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을 실천